

광주·전남 땀별보다 뜨거운 추모 열기

나원침 (7886) 김종두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분향소 42곳 하루종일 북적

내일 임동성당서 추모 미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19일 광주·전남 지역민은 분향소를 찾아 그가 남겼던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으며 누구에게나 젖어있던 김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언제나 지켜보며, 어려울 때 등을 두드리주었던 집안의 큰 어른을 떠나 보내는 심정으로 저마다 국화 한 송이를 바쳤다. 지역 곳곳에서 추모위원회가 구성되고 추모문화제, 시민추모대회, 추모 및 정신계승 영상제 등 고인의 뜻을 기리는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

원회' 결성식을 열고 앞으로 추모활동 계획을 밝혔다. 추모위는 장성 백암사 주지 지선스님을 위원장, 임나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전체 추모위원은 광주·전남 각계 인사 1천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추모위는 20일 오후 7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22일엔 대규모 시민 추모대회를, 23일엔 영결식을 열기로 했다. 목포에서는 고인의 추모를 위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목포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가 꾸려졌다. 진보와 보수, 종교, 노동, 학계 등 목포가 모처럼 한뜻을 모았으며, 위

원장은 정종득 목포시장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추모 리본 달기 운동과 시민 분향 참여 유도, 시민추모제 등을 통해 고인의 추모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옛 전남도청 앞 분향소에는 시민과 각계 인사들의 참배가 줄을 잇고 있으며, 목포역 광장에는 무려 100m가 넘는 조문 행렬이 줄어들지 않는 등 광주·전남지역 42곳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추모 인파로 가득했다. 목포역 광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목포시 공무원 정해정(52)씨는 "점점 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문객들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객 김희수(45·목포시 상동)씨는 "고인을 추모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의 업적과 뜻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며 "오랜 시간을 줄을 서고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 현황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면 사무소 2층에 마련된 분향소에

는 이날 새벽 5시30분께 문을 열자마자 김 전 대통령의 친척과 주민 등 50여 명이 잇따라 찾아와 영정 앞에 올음을 터뜨렸다. 김 전 대통령의 조카 김홍선(48)씨는 첫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해 조문객을 맞았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21일 오전 11시 주교좌인 임동성당에서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추모 미사를 거행할 예정이며, 광주·전남 불교협회는 이날 "불자들과 국민이 모두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고 있는지 자상하고 서원(誓願)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9일 밤 현재 광주에는 옛 전남도청, 동구청, 김대중컨벤션센터, 서구청, 전남대, 광산구청, 송정역 등 13곳에, 전남에는 전남도청과 보성역, 함평구청, 순천 팔마체육관, 화순 군민회관 등 29곳에 각각 분향소가 마련돼 조문객을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후광 김대중 학술상·명예박사 학위

■ DJ와 전남대 특강 등 남다른 인연

퇴임 후 전남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본인의 호와 이름을 딴 학술상이 제정되는 등 DJ와 전남대의 인연은 남다르다. 전남대는 지난 2006년 10월 11일 DJ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전남대는 그가 햇볕정책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민주 인권과 평화애호정신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해온 점, 그리고 저술활동과 문화산업 육성으로 문예 진흥의 저변을 확대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학위를 받은 후 "민주 한국의 자랑인 전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광주와 전남대는 우리나라 민주화쟁의 상

징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계속되는 한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열린 특강에서는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북한이 핵을 제거하고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협상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노리기보다는 대북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2007년부터 '후광 김대중 학술상'을 제정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07년 첫 번째 수상자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미국 시카고대학)였으며 2008년에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9년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각각 학술상을 수여했다. 강정채 당시 전남대 총장은 "전남대는 평화와 민주주의 역사적 현장이었으며, 앞으로도 평화와 민주 등의 분야를 특화시켜 연구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상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1·8항쟁 결정적인 도움 준 '은인'

■ DJ와 조선대 국회 진상조사단 파견

조선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상당수 조선대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학내 민주화운동인 1·8항쟁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은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조선대 학내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된 1987년, 당시 통일민주당 이철의원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대를 방문한다. 이후 대학 총장과 경영진의 파행적 학교운영 사태를 국회에서 비판하면서 항간에 '총장님 한바퀴 더 돌시다'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사진을 공개한다. 이 사진은 총장이 구국기도회를 가진 후, 교수와 교직원들로 하여금 대운동장(약 800m)을 구부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이 사진은 국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1987년 10월 통

일민주당 고문이었던 DJ는 조선대생 70명을 동교동 자택으로 초청한다. 학생들로부터 학교 실상을 들은 DJ는 이들 모두에게 식사대접을 한 뒤, 국회의원인 진상조사단을 약속한다. 이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대학에 파견됐고, 문교부의 감사도 진행됐다. 이에 감동한 학생 수백여명은 심시일만 경비를 모아 그해 11월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DJ지지 운동을 벌인다. 이후 12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고 DJ가 평화민주당 후보가 돼 광주 유세에 나서자 유세장소를 조선대 대운동장으로 끌어온다. 당시 경찰은 조선대 학내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학생들은 스스로 '집시유지반'을 조직, 경찰과 협상을 통해 유세장소를 조선대로 확정짓는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검찰, 남구청 압수수색

검찰이 광주 남구청의 인사부정 의혹과 관련해 구청을 압수수색했다. 19일 광주지검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남구청 총무과와 평생학습과 사무실에서 인사, 기부금 처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말 알선주재 혐의로 구속된 전 남구 주민자치협의회장 A씨가 채용·승진 인사에 개입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DJ 웃 30년간 세탁 했는데..." 통곡

○...지난 30년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탁물을 도맡아 온 동교동 세탁소 주인이 고인과의 남다른 인연을 회상하며 비통의 눈물. ○...지난 1977년부터 동교동에서 세탁소를 운영중인 박병선(67)씨는 19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김 전 대통령의 '잠옷'을 맡았는데, 결국 그것이 마지막 세탁물이 되고 말았다"며 애통. ○...박씨는 "80년대 가택연금 기간을 제외하고는 30년간 김 전 대통령 내외의 세탁물을 도맡아왔다"며 "그 동안 변변한 대화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늘 미소가 가득한 인자한 얼굴로 대해줬다"고 회상.. /연합뉴스



“고이 잠드소서” 19일 옛 전남도청에 걸린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김 전 대통령의 다짐과 온화한 얼굴이 담긴 대형 걸개그림이 마치 조문객들을 감싸안은 듯 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